

“행복한 군민 위해 전진” 화순군 공약 실천 다짐

세부이행계획 보고회 개최

화순군이 민선7기 공약사항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공약 실천 의지를 다졌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김경호 부군수 주재로 살·과·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세부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에 들어선 화순군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공유하고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부서별로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했으며 부군수 주재의 토론과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화순군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전면 시

행과 농민수당제 시행, 생물의약품벨트 구축, 화순수목원 조성, 스포츠파크 조성 등 총 49개 공약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9월 중에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약사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경호 화순부군수는 “공약은 군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닌 군민에 대한 700여 공직자 모두의 소중한 약속으로 민선7기 화순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며 “군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 목표를 달성하도록 세부이행계획 수립과 공약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 관방천 태풍 대비 22일 담양군 관계자들이 다가오는 태풍 ‘솔릭’에 대비 관방천 내 수조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웃자란 수초는 하천 내 유속을 저하시키고 태풍 발생 때 하천 수위 상승의 요인이 돼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에 나섰다. <담양군 제공>

장성 쌀, 6개국 즉석밥 만든다

NH농협무역과 소반 원료국 협정 ... 수출 호조 기대

장성산 쌀이 미국 등 선진국 수출용 즉석밥 원료국으로 쓰이게 됐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NH농협무역과 수출용 즉석밥 ‘소반’ 원료국으로 장성쌀을 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즉석밥 ‘소반’은 NH농협무역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6개 나라에 수출 중인 가운데 미질이 뛰어난 장성쌀을 사용하면서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

장성쌀이 수출용 즉석밥 시장에 진출한 것은 장성쌀 판매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노

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군은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벼 육묘장, 경화장 등 쌀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비료, 못자리 상토, 병해충 육묘상자 처리제, 수용성 규산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 수출에 눈을 돌린 장성군은 고품질 신상품을 도입해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러시아와 미국으로 총 6회에 걸쳐 쌀 100t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러시아와는 연간 120t 규모의 쌀을 공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기도 했다.

장성군은 다음달 초에 러시아로 햅쌀을 추가 수출할 계획이다.

현재 장성쌀은 사할린과 우즈베키스탄 쌀 시장에서 일본쌀을 압도하며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쌀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최고급 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러시아 수출에 이어 수출용 즉석밥 원료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장성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쌀 판매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산 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쌀 판매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유료화

10월부터 5000원 ...장애인·다자녀가구·군민은 50%

화순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만연산 ‘치유의 숲’ 산림체험행사 체험료로 5000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화순 도심 만연산 ‘치유의 숲’에는 소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등이 어우러진 120ha 규모의 천연림, 숲길, 명상의 숲, 호수공원, 쉼터 등이 조성돼 산림욕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7월 ‘치유의 숲’ 개장 이후 숲, 체험센터 등에서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하는 걷기, 명상, 산림욕 등 체험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됐다.

화순군은 연간 30만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군은 입산부, 청소년, 노인, 직장인, 장애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에 힘을 기울였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은 무료이며, 화순 군민은 50% 할인된다.

군은 유료화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장회의와 반상회 등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전국구 축제 된 ‘담양 대나무 축제’

세종대·권슈머인사이트 설문 방문객 만족도 전국 2위

2년 연속 국내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꼽힌 ‘담양 대나무축제’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지역축제 중 2위에 올랐다.

22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권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주례 여행 형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담양 대나무축제가 행사콘텐츠와 축제 환경 등 운영 부문에서 710점을 획득해 종합 만족도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16-2017년 문화체육관광광부에서 발표한 702개 지역 축제 중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0사레 이상인 71개 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풍족도와 축제 환경 쾌적도 등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콘텐츠 풍족도 부문은 휴식 공간과 쉼터, 벤치 등 설거리 측면에서 69.3점을 얻었고, 축제 환경 쾌적도 부문은 대중교통, 정제, 주차질서 등 교통 환경 분야에서 63.1점을 얻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화장실과 안내소, 휴식공간 등 편의 시설과 팸플릿, 진행요원 등 안내 진행 분야에서 각각 66점과 64.63점을 얻어 2위를 차지하는 등 4개 분야에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 담양대나무축제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kwangju.co.kr

하늘을 날아 꼭 가고 싶은 관광지는?

장성군, 내달 10일까지 가상현실 서비스 이벤트

장성군이 지역 주요 관광지 하늘 위를 나는 ‘항공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성군은 ‘하늘을 나는 내 꼭 찍어 가고 싶은 곳 어디?’를 주제로 오는 9월10일까지 VR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가고 싶은 관광지를 댓글로 달고 접속주소를 링크로 공유하는 이벤트를 장성군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 120명에게는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선물한다. 당첨자 명단은 내달 13일 장성군 블로그와 SN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성 ‘관광 가상현실’ 서비스는 이날부터 군 홈페이지 ‘관광 VR’ 코너(<http://media.jangseong.go.kr/home/media/v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 관광지는 죽령산, 백양사, 필암서원 등 장성 8경을 비롯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무대인 황룡강과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 등 지역 주요 관광지 15곳과 연결된 23개 지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높은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제작한 VR 서비스가 장성군 곳곳을 역동적이고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